

단독비행

2번째 이야기 "풀 수 있는 딜레마"

FLYING SOLO

2001년 6월 2일에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노동권 확보와 성적차이의 윤리실현을 위한 살맛나는 세상(한림대 여성 행동위 RED/수원대 여성행동위/동덕여대 행동위 여성팀/살맛#1)이 당신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참세상 go smsm

Flying Solo Flying Solo Flying Solo Flying Solo

두 번째 이야기 "볼 수 있는 딜레마"

종종 나 자신의 이야기는 주위의 시선들 속에서 표류하곤 하는데,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라고 밝히는 순간
 주위의 시선들은 따가운 비난이 되어 돌아오곤 한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긍정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잃지 않으면서
 '여성'에게 부착되는 관습과 이데올로기들에 대항하기란
 쉽지 않은 상처와 절곡의 과정을 동반한다.

또 다른 나, 여성들과 조우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들추어냄으로써
 조금씩 치유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조우의 공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획하려는 힘이
 여성주의를 내 안에 담지할 수 있게 해주었으리라.
 ...그것은 세상이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여성의 강한 변론이었다.

세상은 한 쪽 눈만 가진 남성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
 균형이 안 잡힌 머뭇거림과 함께 절뚝거리야만 했다.
 갑작스레 다른 쪽 눈의 안대가 벗겨지고 온몸은 빛으로 가득 찼다.
 조각으로만 보이던 것을 이제 전체로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경험을 통한 발화"와 "주위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타자화시키는 것"
 사이의 딜레마는 여성이 흔히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다.

피해가는 것이 아닌 마주침으로
 "딜레마"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는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보는 것은 어떨까.

친구여, 나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네.

여인에게겐 원래 청단 공포증 같은 것이 있어서
다리를 건널 땐 어지럽고 무서워
아버지나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인데
그러나 추운 겨울날,
홀로 다리를 건너간 여인들이 있었지.

그리고 나에게는 거리에서 죽었어.

여자는
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자신을 통째로 찢어발기지 않으면 안되는가,
검정나비처럼 흰나비처럼
여자는 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선
항상 비명횡사를 생각해야 하는가.

Contents

■ 기획 "풀 수 있는 딜레마"

| 운동사회 성폭력의 일반성
| sexuality, 여성 정체성의 정치

■ Do it now!

| 모성보호는 성적차이의 권리이다

■ 假作 假作

| 여성계의 '변해가네' 원가 개운치 않
다??
| 왜 안티 독화 스마일인가?

■ 기억에서 역사로

| 엘리너 란스와 대화2

■ 그녀들의 이야기

| 남자 교수에게서 배우는 산부인과 수업
| 공중파, 돌고, 돌고, 돌고

Flying Solo Flying Solo

특집 | 풀 수 있는 딜레마.1

대학 운동사회 성폭력의 일반성

1. 운동사회 내의 성폭력이 말아야자

작년 보건의료노조 사건을 계기로 우리 운동사회에 깊숙이 내재해 있는 성폭력에 대한 말문이 보다 속 시원히 트였다. '이제는 말한다 운동사회 성폭력' 토론회가 진행된 이후 운동사회 내에서조차 일정한 유형을 띄며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폭로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송보순, 강철구, 박일문, 이한별, 정병도 등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공개를 포함한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여성주의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의 필요성으로 자율적 자발적 운동을 지향하는 100인위의 구성 그리고 사건 수집을 통해 1차, 2차 운동사회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발표와 같은 활동은 운동사회라는 특수성 속에서 폐쇄적으로 되는 성폭력들을 (모든 운동사회의 개별 주체들에 의한 자기 고찰의 수위는 아니더라도) 보다 가시화할 수 있었다. 우리가 성폭력의 범주를 운동진영으로 한정시켰을 때, 대학사회에서의 운동진영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현재의 대학이 기존의 사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듯이 잘못된 우리 사회의 성문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폭력을 대학은 거울반영하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운동이란 것 역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터부시해 왔으며 여성폭력에 있어서의 자기 사고나 감정의 틀들을 의도적으로 마비, 마모시키며 직접적 폭력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2. 대학사회운동진영 성폭력의 일반성

98년 6월이었다. 당시 나는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복도에서 술을 마신 가해자의 마주쳤다. 가해자는 나의 간장을 염려해주는 듯 토닥거렸고 혼잣말처럼 "너를 여자로 봐야 할지, 후배로 봐야 할지.." 라는 말을 흘렸다. 나는 설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여 마음에 두지 않았다. 잠시 후 가해자는 인마를 해준디며 나를 동아리방으로 데려갔다. 인마를 하던 가해자는 갑자기 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더듬기 시작했다. 순간, 그 곳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동아리방임을 깨닫고 가슴이 찡뿔 내려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해자에게 느꼈던 고마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선배라는 생각 등이 뒤섞여 혼란스러웠고, 뿌리치게 되면 평소 순결이대물로기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표명해왔던 가해자에게 비웃음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 내색도 못한 채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나는 강간을 당하고 말았다. 가해자는

1) 성폭력 가해자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실명공개 혹은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 가해자 반론권 보장과 함께 '가해자 인권'을 중심으로 한 토론 그리고 '해결과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공개 혹은 사건 사실의 불확실함에 대한 트집, 성폭력 사건으로서의 부정등 이미 예정된 공식에 의해 '피해 여성'은 물론 100인위의 활동을 부정해보려는 시도들 역시 활발하게 자행되었다.

"나는 여기서 자고 아침에 나갈테니 너는 조심해서 지금 나가라"고 하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러 가지'고 요구하였다. 동아리방에서의 일로 인한 혼란함 속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이 든 나는 딱 부러지게 거부할 '명분'을 찾지 못한 채 가해자와 함께 여관에 가게 되었다..... 두 사건으로 인해 허탈을 하게 되었다.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응급실에 가라"고 했고 내가 두려운 심정에 미적대자 이유를 모르는 주변사람들은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가해자의 요구는 더 잦아졌고,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가해자와의 이런 관계를 2차례정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당시 가해자는 "정말 화가 났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화를 냈다. 하지만 후에 다른 피해자로부터 가해자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OO는 나랑 아무렇지도 않게 지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며 성관계를 맺기를 강요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속이 뒤집히는 듯 했다. 또한 가해자에게 "###이랑 이러저러하게 잤다." "OO은 섹스를 싫어한다", "@@는 이렇게 자위를 한다더라"는 식으로 다른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후 다른 여성들에게 이런 문제를 의논하거나 이야기를 꺼낼 수 없게 되었다.

-고대 이한별 사건 피해자 진술서 中-

21 대학사회 운동진영 성폭력 행위에 있어서의 유형화

이한별(99년 고대 부총학생회장), 정병도(98년 동아리 연합회장), 이영주(관악) 등의 다수 가해자들의 성폭력은 행위에 있어서 유형화되어 있으며 일반성을 지닌다. 가해자 그들 대부분은 가까이에 있는 다수의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한다. 이들은 주변의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활동하는 여성들로부터도 신뢰를 받는 운동가였으며 여성들과의 친밀감이나 이성적인 호감을 매개화 하고 직접적인 성폭력에 앞서 동지애적 동정심을 유발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거부가 계속될 경우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성' 관념을 악용하여 피해여성을 절대적 순결주의자로 비하하고 지속적으로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피해자들을 폭력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가해자들의 단적인 '약력'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이 운동사회내에서 일정한 권력을 점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것과 그들의 남성으로서의 권력에 의한 일정한 '합력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남성의 권력적 지위가 함의하는 것은 그들의 권력망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다수의 모든 여성이 피해자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게 됨을 뜻한다.

22 사건/범죄행위로서의 있어서의 정형화

엄연한 범죄 행위로서 대학 운동진영의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아주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가해졌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자신의 정치를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할 일상 활동 공간, 그러나 가해자는 성폭력적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가능했던 일상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또 그들은 자신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성폭력을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끝끝내 우겨대고 있는 것이다. 이한별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그리고 그것이 운동사회에서도 비로소 성폭력 사건으로 회자되기에 성폭력으로 인정은 하겠지만(혹은 사회적으로, 운동사회 내에서 '이것이 성폭력이다'라는 추세가 가속화되기에 어쩔 수 없이 성폭력으로 인정은 하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나 관계에 있어서는 성폭력으로서 부정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들의 반복적인 설득이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가 이미 합의된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23 그리고 그 나머지의 일반성

이한별 사건을 비롯한 소위 학생운동 출신의 성폭력들은 진보를 가장한 운동사회에서의 가부장적 권위를 발판으로 삼아 장기적이고 정교하게 진행되었다. 심지어 그들의 성폭력은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피해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할 정도였으며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야 뒤늦게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성폭력 사건은 또한 사건 공개 이후 사건을 접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경악에 금치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운동에 대한 큰 혼란을 겪게 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들을 둘러싼 대책위 차원에서 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 차원에서의 성명서, 입장발표를 제외하고 실상 그 어느 누구 하나 입을 열고자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3 나머지의 과제

100인위를 통해 공개된 그래서 보다 세상에 알려진 각각의 성폭력들이 지나치게 흡사한 형태이기에 '일반성'으로 압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대학사회내 운동진영의 성폭력이 전체 운동진영에서 보여지는 성폭력과 남성권력(+ 운동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일반적 성폭력과의 명확한 차별성이나 특수

2) 사실 처음부터 일반성이라는 주제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이들 사건들을 좀더 면밀히 분석해내는 과정을 통해 각각의 성폭력에서 두루 나타나는 성질, 성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폭로하고 이것이 가능한 구조를 밝히려는 동시에 매우 특수한 유형들까지도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지만 많은 사건을 접하면 접할 수록 개별 사건들의 유사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 당장은 이러한 유형을 통해 유사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 것이다.

성이 어떤 면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허나 우리가 100인위의 활동에서 특수하게 대학
인들 그리고 대학의 운동 주체들로 눈을 돌려 이 부분을 특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 이
것의 정당한 책임의 주체가 우리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잠시 우리라는 경계를 어떠한
성폭력으로부터도 단절할 수 있는 주체로 한정했을 때, 100인위 게시판의 '단위'나 '조직' 차
원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입장들이나 성명에 비해 운동 개별 주체에 의한 자기 성찰에 근거
한 입장들이 미약한 모습은 잠시 우리들이 멈추어 생각해볼 필요성을 갖게 한다. 자칫 여성
을 향한 이러한 폭력들로부터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이 가해자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지속하
고 있을지 모르는 추상적인 수위에서의 성폭력 인정과 구체적 상황에서의 불인정을 반복하
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우
리'라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Sexuality. 여성 정체성의 정치

여성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절멸시키는 일이다.
타인에 의해 자신의 모든 욕망이 정의되도록 자신을 방기하는 일.
그것이 여성이 되는 길이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그녀는 마녀이거나 유령이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것은 갈등과 자기분열을 초래하는 쉽지 않은 과정 끝에야 가능한 것
이다.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라고 밝히는 순간 책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부쳐지는 원
치 않은 이데올로기중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성을 둘러싼 이야기들이다.

Flying Solo 두 번 째 이야기에서는 Sexuality담론을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여성
의 경험을 통한 발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가부장적 관습체계와 구조에 대한 강력한 도전 Sexuality 개념

우리말에서 성(sex)은 성별 구분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성행위, 성관계를 의미하는
특정한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흔히 sex가 성관계, 성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
비해, Sexuality는 19세기 이후에 구성된 용어로 sex보다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사용된다. 성
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자면 sex는 주로 신체 구조에 기반한 성별을 의미하고,
gender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Sexuality는 국내에서 성성
性이라는 조어로 번역되었으나 일반화되지 못하였고, 이 글에서는 Sexuality라는 용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Sexuality란 신체구조와 심리구조, 사회적 규범과 특정 사회조직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복합적인 스펙트럼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가장 사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공적이며, 예민하
면서도 가장 폭력적일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과 배제를 동반한 Sexuality 통제
는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 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Sexuality는 가부장적 관습체계(이데올로
기)와 사회구조의 맥락 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Sexuality에 주목하는 이유들

Sexuality에 대해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를 제기한 Radical Feminism(급진주의 여성해방론) 진영에서는 여성해방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Sexuality에 착목한다. 이는 여성성-여성의 Sexuality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남성성의 공격성에 대한 비판까지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존재하며, 피임과 낙태, 성폭력, 포르노그래피 등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에 참여함으로써 Sexuality 담론을 실천을 통해 검증해 왔다. 이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성교가 표면적으로는 생물학적, 육체적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태도와 가치는 인간행동을 규정하는 문화구조의 소우주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성관계는 보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인간관계가 힘의 관계로 엮어지는 광의의 정치적 관계라고 할 때 성관계도 성의 정치학이라는 개념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성관계도 개인간의 그리고 여성과 남성 집단간의 힘의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관계이다. 이는 "남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성적 행동에 대해 여성들은 왜 비난받는가?"라는 질문을 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여성의 Sexuality에 부착된 '질 오르기증 신화'는 어떠한가.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는 사랑을 가부장적 관계의 한 형태인 낭만적 사랑으로 타락시키며, 이는 남성 쾌락의 주도하에 여성의 성이 규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여성의 Sexuality를 사적 영역화 해온 오랜 관습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에 투여함으로써, 성계급 제도를 보존시키게 하는 것이다.

급진적 여성해방론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남성의 '공격성과 지배의 욕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Sexuality라는 가장 기본적인 데에서 여성종속, 남성 지배의 규범을 갖고 있고, 이것이 다른 상황의 기본 규범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법적, 정치적 제도가 있으며 이성애 관계는 자발적 평등, 정의의 관계가 될 것이라는 합리주의적 관념이나, 또는 올바른 경제 제도가 이성애 관계를 착취적이거나 소외, 또는 억압 관계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맑시스트 이론과 달리 Sexuality 개념이 재구성되지 않는 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적으로 남아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즉 성을 사회 맥락에서 권력관계와 명확히 연결시키면서, 여성종속의 핵심적 기제로서 Sexuality 통제를 분석해내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Sexuality를 보다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영역을 추출해내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운동으로서의 가능성에 착목하는 것이다.

그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반 성폭력 담론과 활동은 여성이라는 정체성 드러내기에서 출발한 Sexuality 정치의 주목할만한 성과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과 현실에서 작동되는 여성의 Sexuality통제를 서술한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포르노그래피

포르노그래피를 반대하는 보수적 입장은 성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성에 대한 엄숙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포르노그래피 옹호는 도덕주의가 내포하는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표현의 자유'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성의 은폐는 도덕주의자들의 위선이며 이러한 위선적인 은폐를 폭로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혹은 포르노그래피를 예술의 영역으로 간주, 그에 대한 판단에 특정 집단의 자의적인 판단-국가권력, 보수주의 집단에 의한 자의적 판단이었을 때는 더욱더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포르노그래피 옹호 입장의 또 하나의 축이다.

Sexuality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성에 대한 엄숙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는 두 진영에 의해 주도된다고 했을 때, 여성주의의 입장으로 포르노그래피를 인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딜레마가 존재하게 된다.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은 자칫 보수적 도덕주의자의 편에 서게 되거나 또는 여성의 성욕을 억제하는 입장으로 읽히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진보적 입장에 반하는 세력으로 오해받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포르노그래피를 둘러싼 논의들이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과 배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포르노그래피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전제가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포르노그래피가 이론이라면 강간은 실천이다"라는 표현은 여성에 대한 대상화, 상품화, 성별화된 시선, 언어,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적 환타지를 포르노그래피가 남성집단에 제공함을 드러내준다.

sexuality 통제의 최신행태

여성의 Sexuality통제의 최신행태는 실제 여성의 성적 사생활에 대한 침해의 결과로 얻어

지는 남성쾌락에 의해 발생한다. 필자가 예전에 작성했던 원고 '백지영과의 마주침'을 실는 것으로 "Sexuality, 여성 정체성의 정치" 기획의 첫 번째를 채우고자 한다.



Flying Solo Flying Solo

특집 | 풀 수 있는 딜레마 2 '읽을꺼리'

백지영과의 마주침

메리 픽포드를 떠올린다.

꽤 오래 전 '메리 픽포드'라는 이름의 여배우를 사진으로 마주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무성영화 시대 최고의 스타였다. 20 여 년간 즐기치게 귀여운 소녀 역을 맡았는데 끔찍스럽게도 32세에 12세 소녀를 연기하기도 했다. 메리 픽포드의 귀여운 소녀 이미지는 당시 여배우들에게 '나이먹은 여자'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였고,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성숙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녀가 더 이상 12세 소녀 이미지를 연출해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에게 "수명을 다 한 여배우/ 끝장난 인생"이라는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 그녀에게 소중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백지영의 가혹한 자기반성

백지영. 백지영은 어떤 놈의 표현을 빌리자면 "천박하기 그지없는, 한 술집 여자가 '성상남'이란 줄타기를 이용해 스타가 되었지만, 그녀의 천박함을 탄로당해....." 백지영은 여가수로서의 수명을 다 했고, 끝장난 인생이 되어버렸다. 약 20일만에 걸쳐 백지영의 아웃팅 경로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고, 당신들도 다 잘 알고 있을테니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린다. 피시방 컴퓨터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버린, 수많은 녀들이 보았을 일명 '백지영 섹스 비디오' / 사진 합성이라는 백지영 측의 입장발표 / 결과, 사진합성이 아닌 백지영 본인이라는 판명 / 백지영의 사죄와 눈물의 기자회견 / 백지영이 연예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10중 9는 '청소년의 성인식과 윤리가 오염되 악영향을 끼치므로 절대 안 돼' 라고 했고 / 백지영의 눈물로 범벅된 고별무대...내가 기억하는 백지영에 대한 우울한 것은 이 정도 이다.

백지영이 완전히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질 무렵, 백지영을 지지하는 몇몇 site들이 거의 허접한 글들로 도배가 되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쯤 오현경이 일본잡지의 표지모델로 컴백했고, 가능하다면 연예활동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조심스레 밝혔다. 잠시, 백지영에게 소중한 어떤 다른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에게 소중한 것은 오현경이 그랬듯이 다시 연예인, 스타로서의 위치를 되찾는 것이었을까. 거듭된 사죄와 반성으로 다시 우리 앞에서는 것만이..... '그녀의 과거'를 깔끔하게 용서할 수 없다는 여론과 그녀에 대한 동정론이 엇갈리는 지점에 어색하게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으로 오현경의 상처는 조금, 치유가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백지영도 한 1년 후쯤 반성과 후회로 점철된 자신의 공백기를 내보이면서 다시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것으로 '백지영 아웃팅 시나리오'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백지영 끝장내기 시나리오’

예정된 블루엔딩

‘백지영의 상처를 아는가’라는 존스런 질문 따위로 당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 백지영의 상처를 이해하고 싶다는 식의 관용적 태도(다소 수혜적인)나 그녀의 사생활은 보호되었어야 한다는 식의 시대의 관음증을 비판하는 답을 이끌어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백지영 끝장내기 시나리오’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근거들을 가지고 당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 애초부터 블루엔딩으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는 준비된 시나리오에 오현경, 백지영, 수 많은 여자 연예인들을 강제 출연하게끔 하는 것이 어떤 구조와 관습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백지영 죽이기 시나리오가 성공한 것은 현재의 특수한 관음증적 성문화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며, 여성을 끊임없이 대상화하는 가부장적 신념체계와 이것이 발현되는 최신형태-섹스 비디오 유통, 인터넷 포르노 방송 등의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공모/ 작동해왔는지를 읽어내는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백지영과의 마주침 1

인간에 대한 호칭이 삭제된 채 불려지는 그녀

‘백지영’이란 단어는 이름의 의미를 상실했다. 개인적 삶을 전유할 수 있는 주체에 붙여지는 호칭이 ‘이름’인데, 백지영은 하나의 코드로 회자되기 때문이다. ‘백지영=그녀 혹은 그사람’이라는 도식이 성립하지 않으며 섹스 스캔들의 대명사로 코드화되어 언급되거나 연예계 성상납 매커니즘의 피해자로 코드화되기 때문이다. ‘백양 섹스 비디오’라는 이름을 달고 백지영과 관련된 사건 전달이 이루어진다. ‘인간에 대한 호칭 삭제’는 백지영에 관계된 어떤 담론 속에도 그녀가 주체로 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백지영 Outing 시나리오 시작된다. 그녀의 성생활을 담은 비디오 테잎이 공개되기 이전, 즉 백지영의 스타시절에 이미 백지영은 하나의 코드화된 이미지로서 존재했고, 섹시한 여성의 대명사로 코드화되면서부터 그녀는 ‘인간에게만 붙여지는 호칭’이 주어지지 않았다. ‘섹스 어필’이 그녀의 몸에 부착되는 순간 백지영에게 주체로서 담지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메리 픽포트라는 이름의 여배우를 잠시 떠올려보자. 32세의 나이에 자신의 몸의 변화를 부정하면서 12세의 귀여운 소녀 이미지를 연출해내기 위해서 이 여배우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여배우로서 그녀가 언급되는 것은 32세로 끝난다. 소녀 이미지가 재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녀의 삶 자체에 치명타가 되어버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백지영이 섹스 어필을 무기로 스타덤에 오른 것은 그녀를 ‘죽거나 혹은 섹시하거나’라는 상황에 직면하게끔 한다. 인정되고 허용되는 것은 섹시한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지속할 수 있는 백지영이며, 백지영을 주제로 호명하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녀의 성생활이 공개되었을 때 백지영에 대한 낙인찍기는 너무나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백지영이 우리에게 유명해진 것은 ‘섹시해서 보기 좋음’ 때문이었으므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따위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백지영과의 마주침 2

철저하게 준비된 ‘아웃팅’

‘아웃팅’은 갑작스럽게 그녀의 성생활이 공개되어서 혹은 최근 수위가 높아진 관음증적 성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존재해온 여성에게 부착되는 남성중심적 시선들 속에서 인격이 삭제된 여성이 만들어지며, 남성 쾌락이 여성을 전유하면서 이 사회는 ‘백지영 죽이기’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도울 것까지 기계들과 관습체계의 최신형태들이 고안되는데, 그 중 하나가 ‘불카’와 ‘관음증’인 것이다. 200년 전 메리픽포드에서부터 지금의 백지영 까지 여성이 재현되는 이미지는 그 형태를 달리하지만, Stero Type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무엇과 맞물려 구체적 개인에게 폭력적으로 작동하는가에 있어서 시대마다 다른 기계들이 동원되는 것이다. 현재의 ‘아웃팅’은 순결함과 섹시함이라는 여성의 성에 대한 이중규범과 성상문화의 메커니즘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백지영 아웃팅 시나리오가 우리를 둘러싼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지는데, 이는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작동원리에 의해 최신 통제전략의 표적이 된 백지영을 읽어내는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금 생소한 개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sexuality라는 개념이다. 백지영에게 가해진 성통제가 단지 혼전 여성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한 비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백지영의 섹스어필과 성문화에서의 여성의 성이 위치하는 바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성욕, 성생활, 성활동, 성적 코드 등을 통칭하는 의미로, 현재의 성문화를 읽어내는 속에서만이 여성의 성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sexuality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도록 한다.

백지영과의 마주침 3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파산선고 'sexuality 통제'

역사적으로 여성의 sexuality는 억압되어 왔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선 가부장제 문화의 바탕에서 구성된 성개념, 성지식, 성윤리의 주체가 남성들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남성 중심적 성담론은 우선 성을 성교, 성행위 중심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성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성을 생리적 현상으로 보고 사회구조와는 분리되어질 수 있는, 자율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성에 대한 담론이 주로 남성에게 의해 독점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남성과 여성이 접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담론을 주도하는 주체가 남성일 때 여성은 남성적 쾌락의 도구로서 대상화된다.

sexuality는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신체, 심리구조, 사회적 규범과 특정 사회 조직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복합적인 스펙트럼이다. 가장 사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공적이거나, 가장 여리고 예민하면서도 가장 폭력적일 수 있다. 이러한 sexuality를 통제하는 것은 예를 들어 백지영이라는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혀 Outing된 사건을 넘어, 여성의 정체성, 자아의 형성과 성활동, 성역할에 분리되지 않고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발현된다.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중심적 시선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는 sexuality통제는 여성의 일, 사회적 정체성, 성취, 사회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카 섹스'를 하다 발각된 남자 연예인에게 가해지는 시선과 자신의 섹스장면이 공개된 여자 연예인에게 가해지는 시선이 극단적으로 다르게 드러나는 것을 설명해준다. 백지영에게 있어 '섹스 비디오 사건'은 하나의 '오점'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사회적 존재에 치명적으로 작용되는 것이었고, 이는 현재의 성문화가 얼마나 여성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는 왜 남성들의 성적 행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반해, 여성들의 성적 행동은 가혹하게 비난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간의 답을 제시해주는 부분이다. 단적으로 오현경과 함께 섹스 비디오를 찍은 남성은 케이블에서 뜨는 연예인이 되었던 것을 떠올릴 수 있겠다. 섹스 비디오 폭로로 그 남자가 섹스 어필을 장식으로 달고, 스타덤에 올랐다면 그녀는 존재 자체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Outing' 과정으로 이득을 보는 이는 섹스 비디오를 보며 성적 만족을 위한 놈들과 상대 남성, 비디오 유통을 통해 거대한 이윤을 획득한 이들, 그리고 여성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집단에 보다 접근하게 된 남성 집단인 것이 명확해진다.

백지영과의 마주침 4

성에 대한 이중규범과 성 상품화 매커니즘의 공존

여성의 종속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sexuality에 대한 통제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통제 전략들이 고안되고 유지되는 중심에 sexuality 통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성은 성기 중심적인 의미로 국한되어 개념화되기 때문에 쾌락과 동일시되며 유교적 관념 하에서 도덕적 타락으로 귀결되는 본능 혹은 충동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성에 대한 엄숙주의적 관념은 성인의 성과 성인이 아닌 이의 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며, 이는 성인=남성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권력으로서의 성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화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성에 대한 발화 자체가 금기시되기 때문에 여성은 가부장적 구조하에서 객체로, 남성에게 의한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즉 여성의 성이 발현되는 유일한 사회적 허용은 성적 대상화 혹은 상품화의 경로를 통해서만이다. 정숙한 여성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순결 이데올로기와 섹시한 여성이 남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중규범, 그리고 성 상품화 매커니즘이 공존하는 가운데 여성의 sexuality은 여성에 대한 남성 통제의 기초로 자리하게 된다. 때문에 여성의 sexuality를 정치화하는 것은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제, 자본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이중적 성규범의 잣대로 여성을 폄하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다.

백지영과의 마주침 5

sexuality통제의 최신전략 '사생활 엿보기'

최근 sexuality에 대한 통제는 인터넷, 비디오 등의 자본의 거대 유통 구조하에서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가부장적 관념은 성인 남성의 성욕을 관음증으로 포장하면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는 남성의 성욕이 사회적 역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여성 통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은폐하는 것과 동시에 성 상품화의 주요 소비층으로 남성집단을 위치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백지영 사건 등에서 드러나듯이 익명 대중으로서의 남성집단에 의한 개별 여성의 sexuality 통제는 관음증과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만을 대립적으로 부각시킴으로서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성 상품화 매커니즘에 의한 피해자로서의 여성은 의도적으로 삭제한다. sexuality 통제의 변화되는 방식 가운데 가장 최신형태라 할 수 있는 '실제 성생활 엿보기'식의 몰래카메라는 단순히 한 여성 연예인의 스캔들이 아닌, 고착화된 가부장적 관념(이중적 성규범: 순결 이데올로기·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과 자본주의 매커니즘(성 상품화의 유통구조)하에서 개별 여성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몰래카메라와 관련,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자'만을 처벌토록 돼 있다. 촬영한 증거가 없을 때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제재도, 처벌도 할 수 없다. 거기에는 몰카비디오는 촬영, 제작, 판매 등 각 단계가 철저히 분화된 채 점조직 형태로 은밀히 유통된다. 때문에 당국이 단속을 나서도 고작 비디오를 파는 가게 정도만이 걸려들 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테이프를 제작한 사람들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사건과 담론은 주로 사이버 상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점과 보수적 성 담론 하에서 여성의 발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여성 일반을 이중적 성규범으로 다시한번 통제하게 된다. 즉 백지영에서 가해졌던 가부장적 시선들로 여성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성성 통제는 현재 인터넷 성인 방송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제재 역시 '선정성·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에 의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에 대한 이중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 성에 대한 엄숙주의에 의한 규제와 단계화된 매커니즘에 의한 성 상품화의 확대가 공존하는 것이 남한 사회 성문화의 현주소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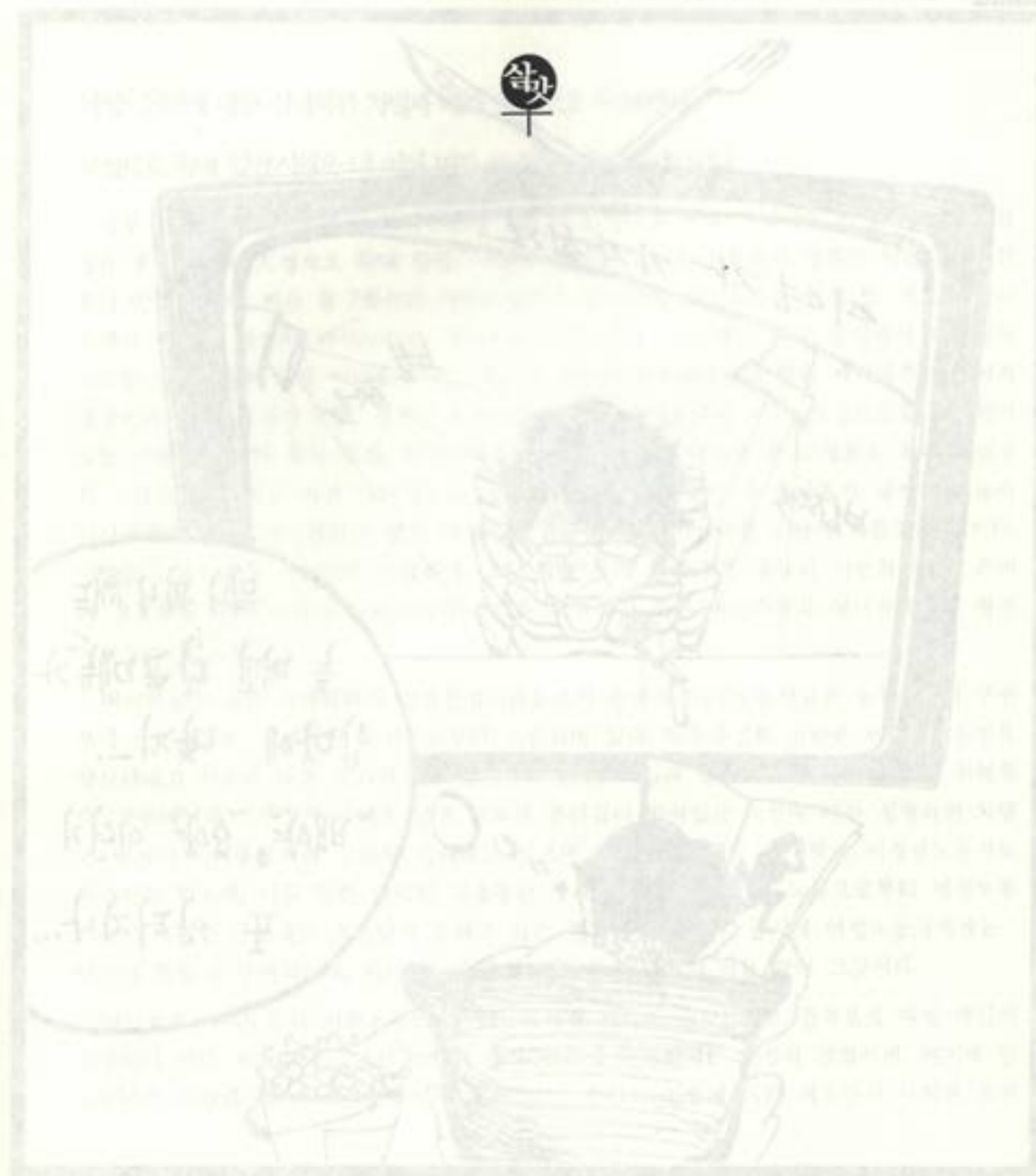
백지영과 나는 아에서 마주치다

이쯤이면 피해자가 백지영과 오현경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백지영에게 가해졌던 시선들과 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관념이 바로 우리에게 가해지는 가부장적 시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백지영과 당신이 가부장적 구조와 관습체계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과도한 결론에 혹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생활 엿보기' 형태의 포르노가 확산되고 그것이 내가 다니는 화장실, 여관에 설치된 몰카를 통해 나 역시 인터넷 '라이브 포르노'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당신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당신과 백지영의 과도한 연결고리를 설정하는 것도 무리하다는 걸 안다. 백지영 죽이기 시나리오가 가부장적 신념체계와 상품화 매커니즘에 의해 작성되고, 남성들이 이득을 전유하는 것을 결과했다면 그 속에서 침묵한 당신과 나는, 과연 백지영에게서 삭제되었던 '주체'라는 소중한 가치를 전유할 수 있을까. 섹시 스타 백지영에 열광했던 이들이 그녀의 과거를 용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버린 이중규범 속에서 당신과 나 역시 어색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닐지.

그녀들은 스타니까, 연예인이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낙인찍히기가 가능했던 거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섹시한 여성 이미지를 담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 섹시 스타 백지영이 Outing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정숙함을 다시금 추스르지 않았는지, 다 아니라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여성 이미지를 하나하나 열거해 보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귀여운, 정숙한, 섹시한 이 셋 중 하나가 아닌지?

2001년 이화여자대학교 자치행동그룹 매체지 '아' 2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그들이 차려낸 식탁에 등장한 '예외적 메뉴'

만 평



모성보호는 성적차이의 권리이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별화된 차별과 배제 모성보호 축소폐지

모성보호 확대 입법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여성의 권리이다

정부 여당은 여성노동자의 10여년간의 요구인 모성보호 확대 입법안이 시행 2년 유예 결정을 발표하였다. 모성보호 확대 입법, 시행이 사실상 폐기된 상황에서 정부는 이달 초, 출산휴가 90일 확대안만을 올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모성보호는 단지 법, 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여성이 가사노동과 임노동의 이중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서 여성권의 축소를 가속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전제를 확보해나가야 함을 제시해주는 정치적 쟁점이다. 또한 확대의 주요 전제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명시, 모성보호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조치 강화, 비정규여성노동자에 대한 확대적용 등 모성보호 확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이었다. 때문에 모성보호 확대안 중 출산휴가 날짜만을 늘려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여성계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에 다름없는 것이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시작부터 입법화에 그 목적을 두지 않았다면, 정부의 기만적인 제스처에 잠잠해질 것이 아니라 성적차이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여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와 성별분업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주변부에서 초과착취, 성별화된 폭력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노동유연화 전략은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해내고 이들에 대한 초과착취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과 남성에게 이로운 방식을 취해왔다.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은 남한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차별과 배제의 이데올로기를 강력히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3명 중 2명이 비정규노동자로 착취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부터 여성노동자들이 어떠한 구조책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결과했다. 동시에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어머니 역할'이 부여되는데, 가사노동과 출산, 양육을 전담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임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는 전적으로 여성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특히, 임신 기간과 출산 이후에 극대화되는 여성의 경험이며, 여기에 임노동까지 수행해야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임신, 출산의 경험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조치

가 필요한 것이다. 임신, 출산과 육아로 인해 강도가 높아지는 가사노동과 전술했던 바와 같이 열악한 노동조건 하의 임노동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기본적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기에 모성보호 확대 입법은 현 남한 여성노동자의 대다수가 재생산노동을 전담하는 상황에 대한 전 사회적 책임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모성보호 확대 입법, 시행이 온갖 협잡들 속에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은 남한사회 여성노동자들의 권리가 엄청난 가부장적 관습체계와 구조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드러내준다. 10여 년에 걸친 오랜 투쟁 끝에 김대중 정부는 출산휴가 90일 확대, 모성보호비용 일부의 사회분담화를 위한 재정 마련 등을 발표, 올 7월 시행을 공언했었지만, 경총, 자민련 등 보수집단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공세에 힘입어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말살해버린 것이다.

모성보호 확대를 가로막는 "경제위기에 모성보호는 시기상조" 식의 논리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재생산 노동을 여성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수행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해주는 것이다. 또한 모성보호 확대 입법, 시행에 방관적 태도로 일관해온 김대중 정부는 정, 재계, 여론의 수용과 경제위기상황 고려라는 이유로 모성보호 확대 시행을 사실상 폐기해버렸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와 성별화된 차별을 더욱 쉽고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와 자본은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동유연화 전략을 전격시커 나갈 것임에 틀림없다.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전혀 없는 김대중정부나 그간 모성 착취를 통해 기업이익을 축적한 자본가의 철저한 공모시나리오에 의해 여성노동자의 종속은 지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우익 집단들은 '여론 호도'라는 공범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모성보호 확대 시행 폐기발표 직후, 둘째아이를 임신중인 한 여성노동자가 "모성보호는 바라지도 않으니, 모성착취나 말라"라며 작지만 분노어린 목소리를 냈었다.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출산 직전, 직후 부과된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자신 혼자서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과함께.

여성부 신설로 여성에게 우호적인 정부로써의 면모를 과시하던 김대중 정부는 가부장적 고용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발판으로 모성보호 확대 입법, 시행 폐기를 추진함으로써 반여성적, 반민중적 본 모습을 극명히 드러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별화된 차별과 폭력으로 인한 착취와 배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하기에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투쟁은 반여성적 김대중 정권을 반대하는,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미래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이며, 때문에 사회전체가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고귀한 노동"이라거나 혹은 "건강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질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세워야 할 기본과제"라는 식의 여성계의 입장은 여성적 비전을 담지한 투쟁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성의, 성적 차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으로서 모성보호 확대 입법, 시행을 주장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모성보호 사회분담화 비용의 기업부담을 고려해서 이것 저것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력 수급을 위해서라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그것은 여/성이기 때문이다! 모성보호는 성적차이의 권리이다!"라고 주장하는 투쟁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공간에서,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급진적으로 옹호하는 투쟁의 공간에서,

■가부장적 고용전략, 성별화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한다

■민주당은 출산휴가 90일 확대안 만을 입법화하겠다는 기만적인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여당은 모성보호법 2년 유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모성보호 확대 개정안을 즉시 시행하라!

■모성보호 확대 및 육아지원을 위한 5개 사항(산전후휴가 90일 연장, 유급유사산휴가, 임신부의 건강검진휴가,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 보장,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을 즉각 시행하라!

■김대중 정부는 모성보호 강화의 의지를 보이고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화와 국가의 예산 확보로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분담화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라!

■모성보호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라!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관련 상세 규정을 명시하라!

라는 주장이 담긴 행동들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Flying Solo

Flying Solo Flying Solo

飛作飛作 | 아작아작.1

여성계의 '변해가네' 판가 개운치 않다??

정말 '깜'으로 쓰는 글

부제: 연상의 이원과 사고의 비약

활동하다보면 딱히 근거를 대거나 설명은 못 하더라도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깜'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러한 깜이 100%들어맞는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최소한 특정 시기의 활동에 있어 경계할 점을 인식한다는 것이 그다지 손해 볼 일은 아니리라 믿는다. 그럼 요새 살맛 #1이 느끼고 있는 '깜'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여성 단체들의 '변해가네'이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여연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의 주류화이다.

간만에 둘러본 여연 게시판은 마초들의 '글 같지 않은 글'로 온통 도배가 된 채였다. 여성 단체 어디든 사이버 마초들의 습격을 받아본 곳이 없지 않았지만 '여성단체 연합'이라는 이름의 대중적 영향력이 다른 여성 단위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호주제에 관한 voting, 오한숙씨와의 글에 이어 새 칼럼 하나가 눈에 띈다. 정부효 행자부 사무관의 글이다. 여성 운동에 방향 전환이 필요한데 그 전환이라 함은 '남성을 꺾이고 가기'라는 것이다. 남성을 적대하지 말고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이다. 과연 여지껏 여연을 비롯한 주류 여성 운동이 남성을 적대하며 운동을 해 왔는가, 아니면 다른 단위들이 그러해 왔는가? 물론 일개 한 남자 활동가의 글이 여연 전체의 입장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요새 심심치 않게 들리는 표어인데다 그들 말마따나 여성 운동에 방향 전환이 있을 때 이동되기 쉬운 말이라 심상치 않게 들릴 수밖에 없다. "남성들이 여성부서나 여권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과격하고 이상적인 여권 논란'에 대해서는 남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조화점을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3) 라는 말에서 보여지듯, 점차로 여성 운동진영은 '과격하고 이상적인 여권 논란'을 피하고 되도록 '조화점'을 찾아 나아가려 하고 있다.

점점 변화하는 내홍들보수화의 조짐들

3) 그는 이어서 "앞으로 여권관련행사에는 가급적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수로 초청하여 양성평등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공동회의의 장을 엮어 어떨까?"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였다.

Flying Solo

결보기에 화려해진 올해 3.8 행사에 대해 동일성으로 묶인 폐쇄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정부차원의 지원과 국가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일부 긍정적 평가도 있을 법하다. 그런데 이번 '여성 권익 신장의 디딤돌'을 보자면 '군산 성매매 지역 화재 참사 유가족' '전여노조 88CC분회'등이 선정이 되었음이 눈에 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연의 권위 내지는 영향력에 기반한 'BEST/WORST' 선정 작업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요구를 받아 안으려 하는 노력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 성매매 근절을 위해 여연은 어떠한 노력을 벌였으며 최근 어떠한 입장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마치 삼풍사건의 생존자나 그 가족들을 피해자로서의 목소리는 묻어버리고 '인간 승리'로 치켜세우던 언론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지난 해 김강자 서장의 수상 당시 미군을 상대로 하던 매매춘 여성인 서정만씨가 사망한 사건은 무엇인가를 시사해 준다. 더구나 공식적 입장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 매매춘에서 쌍벌제를 적용하자거나 공창제를 지지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새어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이러한 경향이 준비중인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이 된다. 또한 경기 보조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까지의 투쟁에 여연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여기에 얼마나 자신할 수 있을까? 굳이 물을 필요가 있을까?

더욱 아쉬운 것은 이번 모성 보호 입법화 투쟁 때 보인 모습이었다. 일단 모성 보호의 문제를 영동하게도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 여성이 모성을 선택할 권리 등으로 접근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드러내지 못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한 고민은 뒤로 한 채, 문제 의식이 공유되었는지 의심이 되는 무수한 사회단체들의 이름들을 성명서에 올리는데 급급하였던 모습도 지적할 수 있다. 그리하여 모성보호 입법화 투쟁을 '의무가 전제되지 않은 급진적 여성 노동권의 봉기적 요구'로서 남성적인 노동문화와 재생산 영역에서의 착취에 맞선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승화시키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그간 여연을 비롯한 사회 여성 단체들이 지나치게 법, 제도의 개선 운동에 매몰된 채 현장과 유리된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굵직한 활동 내역을 보자면,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 기념대회 매년 개최, 가족법 개정운동 전개(88-8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전개(88-89), 탁아소 확대설치와 탁아입법 제정운동(90-91), 여성고용평등 불안정 대책 활동 전개(90), 여성의 평생노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91),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 전개(92-93), 남북한 민간여성 교류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와 평양토론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 등이었으며 최근 남녀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호주제 철폐 운동 등도 꼽을 만하다. 물론 그 의미가 결코 작지는 않은 활동이지만 상충 명망가 위주로 국회 혹은 힘있는 자들을 향한 로비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잡아가는 방식이나 이슈가 되는 사건이 아니면 조직역량을 투입하지 않는 타성은 비판받아야 한다. 이 같은 관성에 의해 모성보호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이슈화 가능한 법개정 운동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 같은 관성이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으며 어쩌면 태생적 한계도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1987년 결성된 여연은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억눌린 여성의 해방, 자주, 민주, 통일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단체들이 더 나은 연대활동을 하기 위해 22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합체로 당시의 '진보적 여성운동'의 흐름을 상당부분 계승한 측면이 있다. 진보적 여성운동은 당시의 시대적 과제로 꼽힌 민주화 운동 내에 부문의 위치로 자리하여 전체 운동에 복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거기엔 여성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이며 부차적인 것, 평등주의적 법, 제도 개선과 대중 계몽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스며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공동의 '범민주 전선'에 섰던 환경, 인권 등 다른 사회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지해 오던 DJ 정권이 들어서자, 애초에 해당 영역에 대한 급진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던 만큼 급속히 관변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5)

2001년 여성부 신설로 너무 일찍 삼페인을 타뜨린 여성계

어쩌면 이들은 여성부 신설로 너무 일찍 삼페인을 타뜨린 것이 아닐까? 물론 여성부 신설은 그간 여성계의 숙원이었으며 여성의 주류화를 염원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총예산의 0.0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정부예산으로 그나마 여성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 실태조사나 허공에 뜰지도 모르는 홍보 사업뿐일 것 같다. 물론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라는 단어가 올해 계획에 나와 있기에 각 단체들이 총동원되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인력의 양성 활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남녀차별적 법, 제도 및 관행의 개선과 여성의 권익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6), '차세대 여성 지도자 양성'라는 '목표 달성'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OECD가입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어 활동가들의 활동비가 반으로 줄었다는 여연을 비롯한 단체들의 상황이 여성부 신설로 인해 타개 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른 단체들은 각개 분투?

물론 더 이상 여성계의 입장이 곧 여연 반의 입장이 아니며 이미 여연/여협의 양대 구조

는 깨어진지 오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진보적 여성 노동운동', 아주 거칠게는 'PT 여성운동'을 표방하는 다른 여성 단체들도 사정은 그리 좋지 않은 듯 하다. 이들은 비록 '주류화/관변화'라는 협의에서는 벗어나 있는지는 몰라도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와 '자매애적 연대'를 통해 급진적 투쟁을 벌여 나가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 우선 여성 노동 운동계는 IMF이후 더욱 열악해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맞서 '여성 독자 노조 건설'이라는 여성 운동은 물론 노동 운동에도 한 획을 그을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남한 사회 여성 운동 진영에서 논쟁의 풍토가 전무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 여성 노조연맹, 한국 여성 노동자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전국 여성 노조, 여성 민우회의 인자들이 만든 서울 여성 노조의 '새 갈래 출범'은 그 실질적 활동 내용이나 조직화의 대상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한 채 전체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나 운동 내용의 정교화에 있어 큰 발전을 가져다주지는 못 하였다. 더구나 서로 연대하고 조직하여도 힘든 시기인 2000년, 3.8 대회가 여연, 민주노총, 한국 노총, 한여노협 주최 행사로 각각 갈리게 된 것은 그러한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각개 분투로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힘을 쏟고 는 있지만 이들 여성 노동 단체들 간의 소통과 연대의 부재는 남한 사회 여성 노동권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번 모성 보호법 입법 투쟁 때는 많은 여성 단위들이 단일 사안에 모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앞서 말한 법개정 중심 운동의 한계를 넘지 못하였음은 물론, 서울 여성 노조 등의 불참과 침묵으로 '총력 투쟁'이라도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 배의 자매들'이라는 것을 믿고 싶다. 일각에서 여연을 비롯한 기존의 여성 단체를 '부르주아적 여성운동'으로 규정짓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으나 위협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여연이 성장해온 역사와 그 동안의 남한 사회의 정치적 지형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여연을 자유주의 페미니즘 그룹으로 간단히 규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진부한 말이나, 몸은 남한 사회에 머리는 서구에 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말로 여성을 위한 여성 운동을 위해 고단한다면 제임스 페트라스라는 좌파 교수가 쓴 'NGO는 없다, 운동 귀족이 있을 뿐'라는 글처럼, 일부 사회단체들의 개량화, 관변화의 흐름을 영역 운동 자체의 한계인 양 매도해 버리는 데 본의 아닌 동조를 할 위험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그 글과 같은 입장의 전제는 노동 운동 중심성과 다른 영역 운동의 독자성 부정, 특히 여성 운동의 독자성에 대한 부정이다. 그리고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문제는 사소하고도 위험한 것이며 여성 운동의 목적은 여성이 사회에서 갖는 낮은 지위로써 독자적 계급 운동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본다. 동일성으로 문드러진 노동 조합 조직에 대한 반성과

4) 일례로 gender 중심성과 sexuality 영역의 고민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이나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에서는 보수주의적 입장과 공명하였던 모습도 보여졌다.

5) 지난 총선 때의 여성계 움직임은 쓸쓸함을 남겼다. 보수 정당에서의 여성 후보 할당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겠지만 여성유권자연맹이 하필 과거 빈민주 세력권 인사인 '박근혜'등을 여성 후보로 추천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6) 여성부 2001년 여성 정책 추진 계획

7) 여기서 여성부의 정부 기구로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성부 장관을 여성계 인사가 맡도록 로비를 한 것, 또는 여연이 여지껏 현 정부를 지지해 온 것으로 볼 때 문제는 앞으로 더 애매모호해질 각 미가 여성 단체들의 position과 활동의 독자화 우려이다.

문제제기가 없는 그러한 기회주의적 입장들이야말로 진보 진영의 분열을 책동하는 진짜 주범이다. 우리가 아직 한 배에 있다는 것은 결코 무비판과 일치 단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성 운동 진영이 그 노선과 입장의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좋은 싫든 함께 해결해야 할 정세 속에 같이 놓여있음을 말하려는 것이다.



왜 안티 목화 스마일인가

목화스마일 너무 오래된 가부장적 발상의 마암지 않은 부활

대학의 대대적인 학교 세일즈는 이미 나름대로의 시간적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홍보를 넘어서 이러한 세일즈 풍토는 기본 아이템으로 학교 홍보 책자는 물론이고 각종 선전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버스나 지하철에 붙어서 시내를 활보하거나 라디오를 통해 직접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대학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여대의 경우 이러한 대학 세일즈는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학습 능력이나 사회활동의 가능성과 관련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여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대학당국의 나름대로의 가부장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물론 대학당국의 분석만은 아닐 것이지만) 여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학은 각각의 대학별로 독특한 그러나 사실은 전형적인 전략(이미지 만들기)을 세우는데 동력은 21세기의 전문적이고 다소 역동적인 여성상을 Concept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하여 대학의 주요행사 안내 및 대학홍보에 필요한 재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학교를 알리는 일에 헌신할 아름다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학교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목화스마일의 개최 이유이며 이를 위한 선발기준으로 홍보된 바는

선발기준: 용모, 인성 및 구슬력

이다.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국가행사격의 미스코리아 대회(이것도 너무 웃기지 않은가!)가 사회적으로 치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공중파 중계 폐기까지 언급되고 있다. 더불어서 다양한 여성의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티미스코리아 대회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기도 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너무 대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는 행사라 (또 굳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이상, 그리고 그것을 굳이 봐야겠다는 사람이 있는 이상) 강제적으로 테러를 하지 않고서 당장에 이 웃기는 행사가 멈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번만 사고의 과정을 거친다면 남자들에게 의해 조작되는 이 판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지금의 추세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학교는 2001년 들어 학교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목화스마일을 개최하였다. 기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발기준에 있어서 '용모'는 여성의 몸매에 대한 정형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성을 또다시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 인성 및 구술력에 있어서도 검증의 근거와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미인대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제한된 시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 이미지의 대내외적 고양과 홍보를 위해 지금 동덕의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미인대회의 별다른 것 없는 대회를 개최하여 당선된 학우를 통해 진정 알려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 교육을 위한 동덕이란 공간에서 전략으로 내세운 여성특화에서 여성이 아닌 특화가 중점이 된 지금, 그래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웃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엘리너 맑스와의 대화 2

부제 누가 기억하는가, 어떻게 기억하는가? 역사는 그렇게 구성된다

지난 호 소식지에서의 '엘리너 맑스와의 만남'은 단순한 일대기의 요약판이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흔히 많은 삶을 살았던 그녀의 궤적을 여성의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 외로 단순하다거나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살맛 #1 사람들끼리 나눈 고민들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역사 속 여성의 삶을 복원 해내기

SM1: (역시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 기억에서 역사로-우선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각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해보자. 나는 복원이 point인 것 같아. 공/사 로 이분화되었던 가부장적 역사 구성에서 벗어나서 그 여성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닐지??

SM4: (굴적굴적) 난 모델이 되었던 선배나 친한 후배들 대부분이 남자라서 그런지. 아겔 읽으며 내가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 투사된 거 같아. 누가 복원하고 해석하느냐. 복원하는 사람의 입장이 무엇이나 중요하지 않을까. 누구든 현재의 고민을 출발점으로 복원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 그 뒤론 고민 안 했지만.

SM3: 지난 소식지에서 그녀의 일대기를 정리하며 그녀의 여성으로서의 삶이 참 안타까웠어. 그 땐 그런 거 상상했었는데. 우선 그 시대상을 분석하고 어쩌서 엘리너 맑스가 그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상황이 현재에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엘리너 맑스의 인정받지 못했던 삶의 부분들을 여성주의적으로 훌륭한 점이라고 재평가하며 '안 좋게 떠도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성의 시각에서' 긍정하고 감싸 안는 거지...

SM4: 원래 이거 읽으며 그런 생각했어. 당시에 지금이나 여자가 운동을 한다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겪는 고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여성이 지닌 가능성이랄까.

SM1: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싶어. 난 그 사람 삶을 여성주의적으로 좋게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가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이 언급되고 회자되는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거 같았어.

SM3: 이런 거 어때? 그녀는 당 정치 활동하다가, 조합주의로 소외된 사람을 위해 활동하며 여성에 대한 급진적 발언을 하기도 했잖아. 아예 엘리너를 여성주의자로 만들자.

SM4: 경계가 되는 걸. 대학생 신문 등에서 그랬듯, 사회주의 여자 활동가들을 일러 "그녀는 진정한 페미니스트였다..." 이런 방식은 아닌 거 같아. 이랬으면 강경애(일제 때 작가)와. 그녀의 삶에 부쳐 "여성문제는 인간 문제다"라고들 하지. 물론 어떤 여자 활동가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성주의적 면모는 발굴되어야 하지만.

SM1: 여성문제가 왜 인간 문제야. 여성 문제는 '여성' 문제인데?

SM4: 강경애도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SM1: 보통 열사 추모제 때 보면 열사들이란 대개 남자잖아. 이대는 여학교니까 여자 선배들 추모제가 있지.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재해석 하나면 "그들은 엄청나게 헌신적이었다. 정말 운동에 투신했다. 여자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선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지. 언젠가 최명아 선배의 일기를 봤는데. 자신이 여성인 것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내가 여자이기에 두 배로 열심히 해야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지 않고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인정받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 건 맞지만 그 영향력이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동 운동에 조금이라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였지. 근데 그게 이야기되는 방식은 상당히 거북해요. 여대라 조용하고 천명 단위로 모이기로 힘든 공간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선배상이라는 거야.

엘리너 맑스에서 맑스를 만나자

SM2 (드디어 무거운 입을 열다.) 안 좋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맑스였고 어느 남자 못지 않은 자식으로 아들로 취급받은 조건이 많아. 그게 어쩌면 당시 생에서 짧은 순간에는 다른 여성에 비해 기회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자면 그녀가 여성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들을 오히려 박탈시키지 않았을까?

SM1: 그 상황 땀에 엘리너가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계기를 못 가졌다는 거야?

SM2: 응. 엘리너는 자신의 다른 조건을 의식하지 못했을 걸. 왜냐면 대의가 있었거든. 그것도 개인의 것이 아니라 변혁적 목적에 투신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거였으니까. 왜 다른 여성들의 상황과 다른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못하게 한 상황을 이해는 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보지만. 이

글을 읽으며 여성의 냄새를 느끼며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어. 당시 여성들은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그래서 엘리너를 나와 같은 여성으로 인식하지 못한 거 같아.

SM1: 넌 그녀가 여성이라는 걸 중심으로 네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전제로 여성의 시각으로 본 거야. 왜 그녀의 삶에서 '여성'임이 최우선 시 되지 않았던가. 에 대해 '너무나 다른 여성과 다른 조건들', '여성 종속의 기재들'. 이런 거 말고도 너는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SM2: 음, 아주 저차원적으로 보자면 쉽게 뭔가를 느낄 수 없다는 거야.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는 봐야하는 것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여성으로서의 그녀를 느끼는 것은 가능한 하지. 그게 딜레마인 거 같아.

SM2 (무거운 목소리로 진지하게) 왜 그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을까?

SM4: (성급하게) 여성도 노동이나 통일운동도 하고 싶다면야...

SM2: 여자라서 여성주의적 당파성 외에 다른 삶의 목표를 가져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

여성주의적 복원을 위한 새로운 언어의 필요성

SM1: 김활란 선생, 최명아 선배가 거론되는 거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역시 여성주의적 복원이라는 생각...그들의 짧은 글을 읽어도 여자로서 이만큼 했다는 데서 감동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그녀들이 회자되는 방식이 맘에 안 들지. 참, 내가 이야기했던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있잖아. 그 여성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는 노동 운동이나 노동계급의 모순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도록 자랐거든. 전태일에 대한 무기가 지금도 엄청난 상황에서도 여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여성학을 공부하게 되었다는 점이...

SM4: 현재로서 가능한 부분이겠지. 엘리너 때는 그런 거 금기시하던 풍토였잖아.

SM1: 그 당시에는 클라라 제트킨이 짱이었어(드디어 진지한 분위기 다 깨지다.)

SM4: 부르주아 여성이 적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얻어맞았지.

SM1: 소모임 조직해서 성 문제 토론하고, 맨날 레닌이 호통치고 안 그래?

SM4: (그 천진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 레닌이 '맨날' 그랬대?

SM1: 자주 등장하잖아. "당신은 크나큰 잘못을 범하고 있소"

SM4: 엘리너가 얼마나 맑스의 딸이라는 데서 벗어나고 싶었을까?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던 범위에서는 자주적인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만일 남자였다면 아버지 후광 밑에서 사회주의 운동권 내의 명사가 되었을지도 몰랐잖아.

SM1: 그러나 여성의 역사 재해석에서 대개 축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이 남자였음..."하면서 여자였기에 박탈 된 것에 대한 주목이잖아. 이제 그런 거 말고 여성이기에 가졌던 감정과 일상이 그녀도 있을진대 그걸 어떻게 복원해야 할까? 잘 모르겠어.

SM4: 그래도 '왓스의 딸'에서 벗어나려 노력했던 거 같아. 혁명 운동에 족적을 남기지 못했지만...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닐까. '족적을 남긴다' 함이 뭐야? 사실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 중 누가 이름을 남겼겠어? 우리나라도 중국과 러시아 오간 지식인이나 기억하지. 산에서 죽은 빨치산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잖아. 그리고 왓스의 '아들'로서 혼란은... 분명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사회 주의 당 운동의 폐단에서 오는 유희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신이 아닌걸. 혹 자신의 여성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역편향이 에이블링과의 왜곡된 관계가 아니었을까? 자기를 찾는 여정에서의 일종의 실험이 아니었을까?

SM1: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지만 거기까지 추측하기가 힘든 걸...

SM4: (머쓱)그래, 함부로 추측할 건 못 되는구나.

SM1: 이 글의 서술 언어도 구리지? 이 사람이 선택한 어휘도 물론이고, 이 사람의 마인드가 옐리너 왓스의 삶에 대해 쓸 정도가 아니었던 거 같다.

SM2: 그래 옐리너는 그녀의 그 이질적 조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걸. 그래도 결국은 어찌하여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혁명운동가로서의 생애만이 물 흐르듯 서술되어 있잖아. 그 서술 방식에서 같은 여성임을 알 수 없게 한 거야. 그녀의 흔적이 아주 없 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거의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SM1: 그 아버지의 딸이라 거의 운이 좋았다는 식으로, 왜 그게 운으로 불려야 하는지는 관점조차 없 어. 나도 그녀가 자주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근거조차 이 글엔 안 담겨 있잖아. 이 책에서 옐리너 왓스에서 왓스를 건어냈으면!

SM2: 이 사람은 그녀가 어떤 식의 활동을 했는가만 드라이하게 서술해 봤지. 좀 위험한 말이지만 여성 의 감수성은 다르잖아. 근데 여기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

SM4: 자기 언어가 아니어서겠지. 여성의 감수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말로, 글쓰기도 애초에 의도한 거. 자기가 느꼈던 것조차 담아낼 수 없는 언어로 썼다.

SM1: 이거 너무 하지 않아?(주룩 읽다)"에이블링과의 역구름이 끼었던 시절을 건디게 했던 것 왓스 가 창조한 운동과의 연대감, 의무감, 충성심, 가족적 자부심이었다."

SM4: 글쓰기가 잔인하다.

SM1: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야. 우리가 처음에 원한 건 복원이 전제되지 않은 채 복원을 넘어서 무언가

였어.

SM4: 복원이라 함은?

SM1: 혁명운동가로서도 그러하지만, 여성이기에 언급되지 않은 채 가리워진 부분도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 그야말로 남성중심, 명망가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적 결론.

여성 활동가 그 벗어나기 힘든 굴레들

SM4: 회계 말고 티켓 팔고 번역하고... 이런 일들을 손수 도맡아 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어. 성역할 분 당. 본인의 헌신성 등등. 또 그녀의 정치적 선택을 봤을 때 그렇게 묵묵히 일하는 자들만이 사회 주의적 질서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봐야할까? 많은 여자 활동가들의 헌신성에 대해서. 어디서나 여성들은 참 헌신적이거든.

SM2: 근데 그 헌신성도 성별화 되어야하지 않을까?

SM4: 무턱대고 비난할 수도 찬사할 수도 없는 딜레마-

SM1: 대부분의 여자 활동가들이 그런 영역에 자신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을 비판할 수 있다고 보거든. 구체적 개인의 선택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지. 딜레마 이상의 원인은 있겠지 만. 다소 많은 것들을 해내다가 결혼을 했든지, 이혼도 부각되지 않았는지는, 이런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 옐리너도, 여하튼 그녀/는 훌륭/했다.

SM2: 더 이상 왓스의 딸로 기억되는 것을 거부한다

옐리너 왓스와의 만남을 정리하며.

SM4: 정리를 하자면 본인은 옐리너로 살았겠지만 다른 이들이 말하는 방식은 영 아니다?

SM2: 우리가 체질상 여성주의적인 최소한의 관점이나 서술양태가 있지 않는 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다음은 누가 되어야 할지. 많이 고민이야.

SM1: 아예 여러 사람들을 함께 다룰 걸. 혁명운동의 무게에 눌린 여성들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잖아. 옐리너는 극단적인 경우지. 아버지가 왓스라서. 옐리너. 로자. 제트킨...이렇게.

SM3: 그래도 난 그녀가 왓스 딸인 게 부러워. 옐리너 생애엔 안 좋게 영향을 미쳤지만, 난 우리 아버 지가 그 정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그런 집안 내력이 있다는 게 부러워.

SM4: 그래서 딸이 혁명운동 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 테지.

SM1: 그러나 여성운동을 하겠다 했다면 달랐겠지. 그렇잖나?

SM2: (진지하게 고덕거리며) 고지.

(일동 담 호에는 누구를 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난답을 정리하다.)

다들 'word salad' 같은 말을 늘어놓아서 의미 파악에 애를 먹었습니다. '여성의 역사'가 그저 존재해 주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사실 살맛 #1에서는 역사 속의 여성을 하나 정해서 무슨 일을 했나 알아보고 단순히 뛰어난 점을 드러내어 '본받자'라고 말하려고 이 마당을 기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고민의 점이 필요했던 겁니다. 달걀이 먼저일 수도 닭이 먼저 일 수도 있듯이 역사 속 여성의 삶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잃어버린 여성적 표현과 말하기 방식을 찾아나가는 길이며 그 역도 성립하겠지요.



Flying Solo

Flying Solo Flying Solo

그녀들의 이야기. 1

남자교수에게 배우는 산부인과 수업.

아주 저열하고 감정적인 글이 될지도 모를 각오를 하고 쓰는 그야말로 '잡글'이니 양해를 바라며 여기서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읽지 말길 바란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누군가는 내게 이러한 진단을 내릴 지도 모르겠다. '정신분열증 피해 망상형', '편집성 인격 장애' 등등.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나 청각 장애인, 동성애자, 이민 온 소수민족에 많다는 그러한 정신 질환들...

산부인과는 이번 분기 최대 메이저이다. 거의 매일 오후 3시간 이상을 이 과목을 수강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사실 난 어느 정도 여기에 기대를 걸었다. 여성의 몸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성적만 되면 전공하고 싶은 과 중 하나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수업 첫날, 모든 교수들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길한 전주였다. 그나마 여학생들을 받아주는 과가 산부인과, 소아과, 재활의학 등의 소위 '여성적인' 과 들인데 더구나 산부인과는 여성의 몸을 다루는 학문인데도 여자 교수가 없다니 일단 유감이었다. 아무리 여자 교수가 보수적인 명예 남성이라 할 지라도 남자 교수와는 다른 입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정신과학을 비롯한 다른 수업에서 봤다.

하긴 산부인과 교수들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산부인과의 introduction 품 되는 '생식의학'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만났다. 거기서 자신들의 DNA를 공유한 자식을 얻지 못하는 '환자 부부'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국가 운영을 위해서 감돌여지지 않은 여성의 생식력이 통제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⁸⁾을 배웠다. 그 때의 기억 중 아주 참담한 것이 있었으니 '성폭행 피해자의 응급처치'에 관한 수업이었다. 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피해자는 대한 민국 최고 대학의 모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며...",

"남자 친구가 같이 술 먹다가 12시에 먼저 나갔어. 이놈이 나쁜 놈이지?",

"그런데 데려다 준 남자애가 집이 아니라 여관에 데려다줘서 일이 '꼬이게'된 거야.",

"병원에 남자 친구랑 같이 왔어. 법적 절차를 의논하더군. 세상 많이 달라졌지.",

"그 여자도 처음은 아니었어. 그 전에 남자 친구랑 경험이 있었지. 여러 번."

8) 이렇게 쓰면 다 읽을 거라는 거 안다.

9) 혹 노골적으로 '나 반듯이오'를 외치고 싶다면 가장 조건이 좋은 과임

10) 이 와중에서 여성의 인격은 사라지고 여성은 단지 '홍수 조절' '산림 조경' 과 같이 통제되어야 할 자연 환경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인간'은 없고 오직 '인구'만이 존재한다. 다양한 피임기술의 발전도 '여성의 성적 자율성 확보'가 아니라 '인구 조절'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이라. 아동 성폭력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꼭 이런 애들이 나중에 마약이나 하고 알콜 남용하고 창녀가 되고 그러지. 이미 버린 몸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근데 꼭 한 애가 찾아오면 줄줄이 오네. 이상하지? 인간에게 발정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나? 아니면 한 동네에 정신 이상자가 돌아다니나?”

“성폭력의 정의란 족보에 나오지.(취리력-), 환자의 처치란 안 해주면 법에 걸리는 것이지.(후다닥-)”

산부인과 두 번 째 시간이었었던 것 같다. 산부인과적 진찰의 방법론과 수술방에서의 의사, 간호사 등의 배치¹¹⁾ 등이 나왔다. 여기서 새로 알아낸 사실이 있었다. 예전에 한 실습소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뺨뺨에 “너를 lithotomy에 눕히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그 당시엔 그것이 무슨 뜻인 줄 몰랐었다. lithotomy란 의사가 외음부부터 자궁 경부까지 관찰할 수 있게, 환자가 다리를 구부려 벌린 채로 눕도록 고안된 진찰대이다. 소름이 쭉 끼쳤다. 언젠가 선배 하나가 앨범 사진을 가리키며 말한 것이 기억나서였다. “애가 피해자에 대해 이런 저런 소문을 내면서 동조했단다. 근데 애가 어디 가고 싶어하는지 아니? 산부인과야” 예전 생식의학 수업 때 ‘오늘 rape 나온다며?’하고 눈을 빛내던 남학생이 ‘산부인과 갈까?’하며 웃던 모습과 겹쳐졌다.

하루는 늙은수레한 교수가 들어와 이렇게 말하였다. “20년도 전에 지방의 한 고급관리의 부인이 10년 만에 임신을 했지만 자궁 내 근종이 너무 커져 자궁 절제술에는 방법이 없었지.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죽어도 좋으니 아이를 낳겠다고 하더군. 바로 그것이 모성애인 거야. 그 때가 한 13주되었나? 확실히 여자들이 남자보다 지독한 데가 있어. 그래서 36주까지 근종을 단 채로 버티다 애를 낳았어. 그 리곤 바로 자궁을 떼어냈지. 근데 낳고 보니 딸이야.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때 상당수의 남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으나 여학생은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는 변명하듯 말을 이어 갔다. “아니, 애를 계속 낳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한 번 밖에 애를 낳을 수 없는데 기왕에 아들이 낳았지. 그리고 알고 보면 여자들이 남아선호 사상이 더 강하단 말야.” 그리고는 썰렁해진 분위기를 채신 하기 위해서였는지 그 진부한 조크, 책 보고 천정 어머니인지 시어머니인지를 감별하는 법에 대해 주절 거렸다. 참 이상도 하다. 남학생들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음을 터뜨리곤 한다. 과연 저 친구들은 뭇 때문에 웃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마치 여자들은 알 수 없는, 끈 끈한 네트워크로 남자들은 묶여있고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신호에 따라 울고 웃는 듯 하다. 언젠가 자궁 절제술을 비디오로 보여주었다. 전기열로 조직을 태우고 그 곳을 오려내는 방법이다. 그런데 지금자글 기포를 내며 타들어가는 조직을 보고 상당수의 학생들(대개 남학생)이 웃는 것이다.

“치직, 치직, 로스구이 갈죠?”

그러자 그 학생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어느 교수나 “여자들이 참 지독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신들이 여성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한 교수는 심지어 이렇게 말한다. “진통이란 거 되게 심하나 봐. 어떤 레지던트들은 산모보고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치는 데 난 그러지 말라고 해.”

또 다른 교수가 “여자들이 독하잖아.”라고 말하자 내 옆의 한 남학생이 묻는다. “넌 저걸 어떻게 생각하니?” 아마도 그가 궁금해 한 것은 여자가 과연 남자보다 독한지, 연약한 지였던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타자의 특성에 대해 이래저래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여성성에 대해 함부로 단정을 짓는 저 사람의 태도는 오만하다. 그랬더니 그의 눈이 동그래지는 것이었다. “아, 네가 더 오만한 거 아니? 또 교수님께 ‘저 사람’이라니.”

때때로 내가 혹시 pseudofeminist¹²⁾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나 이런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여성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결국 산부인과 남자 의사들이란? 그들은 성관계와 강간의 차이도 모를 만큼 기본이 안 되어 있고 환자의 몸을 무슨 물건 다루듯 한다. 또한 여학생이 공부를 저 혼자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월경 불순이 생긴다는 등, 강한 여자보다는 좋은 여자가 좋은 것이 아니겠냐는 등, 자기가 가르치는 여학생들에게 무례하기 짝이 없으며 여성성을 그 빈약한 상상력으로 이리저리 재단하는데 거리끼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신비로움’을 ‘찬양하는 척’ 하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별 것 아니네.’하며 ‘깎아뺏기기’ 여념이 없다. 물론 내가 본 것은 대학 병원의 ‘늙으신 양반’ 뿐이지만 그 스승의 그 제자일 터인데 동네 의원 의사라 해서 딱히 다를 것이 있을 리 없다. 물론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인간들이 어찌다 있는 거지. 좋은 남자 의사도 있을 수 있어.”라고. 그러나 과연 ‘누가 봐도 별소리’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가 의문이며 아무리 인도주의적인 남자 의사라도 사회적 권력관계와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이해의 한계(절대로 환자와 같은 입장에 설 수 없을 테니까)를 넘을 수는 없다.

결론을 내리자면 ‘그들’의 태도는 수의사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내 룸메이트의 표현을 빌자면, 동물을 사랑하는 수의사가 들으면 모욕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들만 못하다. 여러분 중에 수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절대로 남자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찾아가지 말자. 그리고 얼마 전 민우회에서 산부인과 병원 ‘best’¹³⁾를 선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운동의 효과를 생각할 때 ‘best’가 아닌 ‘worst’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 아닌가 한다. 그래야만 병원에서 여성의 몸이 얼마나 허참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의사들과 학생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고발할 수 있을 테니까.



12) 우리말로 하면 ‘짜가 여성주의자’

13) 이를테면 ‘아름다운 병원’

Flying Solo Flying Solo

그녀들의 이야기. 2

공중과 돌고 돌고 돌고..

연적 II 동덕 00학번

계절은 지금쯤이고, 시간은 정식을 먹고 한 시간쯤 수업을 받은 뒤 육 교시 수업을 앞둔 쉬는 시간쯤이다. 손 하나 까딱 할 기운 없이 책상에 널브러진 채 누군가 말한다. 아? 뭐 하고 살아야 제일 편하게 먹고 살거잖나? 이 때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누군가의, 혹은 나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세 가지다. 체육 선생, 무용 선생, 양호 선생..... 우리 나라 고등학교 현실에서, 그들도 왜 나름의 고충이 없겠느냐 만은, 입시에도 취업에도 확고한 적을 두고 있지 못한 과목을 가르치거나 학교 내의 허술한 의료사술(?) 여건 때문에 여하튼 그들이 웬지 모를 방만함의 상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내게 누군가 그런 물음을 해 온다면 나는 주저 없이 티비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엠씨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슬프고 답답하지만 여기서의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엠씨는 여자 엠씨를 가리키며 그녀들의 역할 수행의 단순성은, 내게 지난날의 체육, 무용, 양호 선생들에게 달려가 심심한 사과의 말을 전하고픈 유혹을 던지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이다.

과장을 전혀 섞지 않고서 말하건대,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서 여자 엠씨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은 000씨가 준비하셨습니다"식의 말 몇 마디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식이 전해진 뒤에 간혹 곁들여지는 멘트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식으로 기본적 사리분별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때로 상품 소개나 퀴즈 출제가 있지만 이 때는 화면에 상품이나 퀴즈의 내용이 나가므로 원고를 보고 읽기만 하면 된다. 이 아찔할 만큼의 단순성은 그러나, 남자 엠씨 역시 별반 다르지 않으며 물론 그 점을 몰라서 굳이 여자 엠씨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중파 삼사에서 방영되고 있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여자 엠씨들은 프로그램 자체에서나, 시청자들에게서나 남자 엠씨와 다른 시선으로 접근된다. 그들에게는 도통 진행자 다운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며, 한 마디로 말해서 심각할 만큼 어설피고 속 편해 보인다.

현재, 삼사의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여자 엠씨는 손태영, 이승연, 한고은이다. 그리고 그녀들과 함께 진행하는 남자 엠씨는 김용만, 유정현, 손범수이다. 단지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짐을 알 수 있다. 후자는 몇 차례의 쇼프로그램의 진행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개그맨과 유명한 아나운서인 반면, 전자는 미스코리아나 모델 출신이며 두 명은 현재 탤런트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교적 진행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승연과 달리 손태영과 한고은은 정확

Flying Solo

하지 못한 발음과 대사 처리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엠씨로서의 자질 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그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리포터를 살펴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리포터들은 남자 엠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개 전문 리포터나 아나운서, 혹은 개그맨·우먼 등으로 정작 진행을 하고 있는 여자 엠씨들 보다 훨씬 더 매끄러운 말솜씨를 자랑하고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끄러운 말솜씨를 가진 남자 엠씨와 리포터들 사이에서 여자 엠씨의 소위 '버벅임'은 한층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절실히 어설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 엠씨와 리포터의 자리는 분명히 나뉘어 있으며 이는 외모라는 기준에 기인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능력은 떨어지지만 외모가 탁월한 여성이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는 이 도식은 남자 엠씨의 경우 그렇지 않음으로 하여 여자 엠씨의 무능함과 탁월한 외모가 한층 강조된다. 게다가 여자 엠씨의 화려한 의상은 이러한 면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극히 평범한 남자 엠씨의 의상과 달리 여자 엠씨들은 매주 패션쇼에나 나올법한 의상을 입음으로 인해, 남자 엠씨나 리포터와는 별개로 탁월한 외모만 강조되는 자신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고은 이전에 '연예가 중계'의 엠씨였던 김남주는 어느 인터뷰에서, 진행은 다른 분들이 다 하였고 자신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만 결정하면 되었다는 식의 가히 엽기적인 만한 발언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역시 미스코리아 출신의 탤런트였고, 새 드라마가 시작하자 미련 없이 엠씨 자리를 관두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탤런트 출신 여자 엠씨의 한계 중 하나가 이러한 짧은 주기의 문제인데, 이 때문에 남자 엠씨에 비해 또 한 번 전문성이 쳐져 보이게 된다. 결과 적으로 연예 프로그램에서의 여자 엠씨는, 능력이 쳐져도 그저 예쁘면 된다는 우리 사회의 논리를 처절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공중파에서 여성의 경우, 진행자의 위치에 서려면 탁월한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공식은 이름을 내걸고 방송하는 소위 토크쇼에서 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전에 방송했던, 이승연의 '세이세이세이'의 이승연, 김혜수의 '플러스 유'의 김혜수, 현재 방송 중인 이소라의 '사랑할까요'의 이소라는 앞서 언급했던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엠씨들과 마찬가지로 탁월한 외모의 소유자다. 또한 세 명은 이십대 후반에서 삼십대 초반으로 어느 정도 충분한 방송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외모의 탁월함을 견고히 간직한 비슷한 나이대이며, 토크쇼를 처음 시작할 때 주목이 될 만한 인기도 있다. 이렇게 여자 탤런트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의 경우 꽤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진행자로서의 말솜씨는 결코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실지로 이승연은 '세이세이세이'를 진행하다가 프로그램이 없어진 후 현재 '한밤의 티비 연예' 엠씨 자리에 있으며 반대로 '한밤의 티비 연예' 엠씨였던 이소라는 엠씨 자리에서 물러난 뒤 현재 '사랑할까요'라는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이승연과 이소라가 앞에 언급했던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몇 안되는 경우이며 그 만큼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탤런트'가 얼마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과연 그녀들이 연속해서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을 만큼 뛰어난 진행자인가?)

이는 '이홍렬쇼'의 이홍렬, '서세원 쇼'의 서세원, '남희석의 색다른 밤'의 남희석, '두 남자쇼'의 신동엽과 유정현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앞의 다섯 명 중 네 명은 개그맨이며 한 명은 아나운서로, 이들의 쇼가 이들의 입담을 제일로 내세울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 실제로도 그러하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주로 탤런트인 경우의 여자 진행자와 주로 개그맨인 경우의 남자 진행자는 진행의 경향성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 후자의 경우, 당대 최고의 개그맨이므로 그들에게 강조되는 것은 역시 탄탄한 입담이다. 때문에 별다른 보조 진행자 없이 본인의 역량으로 쇼를 진행해 나간다. ('서세원 쇼'에 경우 장호일이란 보조 진행자가 있지만 그의 역할이란 극도로 미미하여 도통 왜 출연하는지 모르기도 모른다. 담당 피디나마 알고 있을 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미녀 탤런트'라는 칭호에 맞게 그들에게 강조되는 것은 탄탄한 입담이 아니라 이룰테면 '안방 마님'같은 이미지이다. 앞서 말했듯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외모도 뛰어나고, 또 매주 가공할 만한 의상을 걸치고 나오는(나왔던) 그들에겐 초대 손님에게 기본적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편하게 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주요 임무다. 물론 그러한 일도 쉽지 않고 그 자체로 크게 잘못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역할 자체가 편안함, 푸근함 같은 덕목에 과도하게 기대어있어 전자의 경우보다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편안하고, 푸근한 이미지로는 초대 손님의 어떤 말도 우선 감싸 안는 것이 제일이며, 따라서 이룰테면 이승연이 토크쇼 진행 당시 초대 손님이었던 신해철이 던진, 남녀 평등이 되려면 일단 엄마가 잘 가르쳐야한다. 그게 가장 문제다 식의 특유의 무대포 발언도 연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면 더더욱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오 해철아, 우리가 사는 이 비정하고 복잡한 세계에는 사회화라는 말도 있단다, 최소한.) 게다가 '안방 마님'의 이미지는 또 다른 뚜렷한 한계점 중 하나는 바로 전자가 취하고 있지 않은 보조 진행자의 존재이다. '안방 마님'의 이미지로는 토크쇼의 많은 대화량을 모두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자' 보조 진행자의 역할은 필수이다. 이승연은 차승원, 김혜수는 홍록기 라는 보조 진행자를 등장시켰으며 현재 이소라 역시 이범수 라는 보조 진행자와 함께 쇼를 진행하고 있다. 차승원과 홍록기, 이범수가 재간꾼의 이미지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 다른 한계점은 바로 토크쇼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내용이다. 특히 보조 진행자가 동원되어 아기자기하게 꾸며지는 코너의 경우 백이면 백 사랑과 결혼, 이성관에 관련된 들쭉거리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오죽하면 이소라가 진행하는 토크쇼의 경우, 제목 자체가 '사랑할까요' 겠는가) 이는 전자의 경우 주로 재미를 위한 다양한 코너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대조적이다.

현재, 여성 진행자를 내건 토크쇼로 유일하게 방송되고 있는 이소라의 사랑할까요는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이소라가 많이 해왔던 외모에 자신 없는 사람들을 위한 클리닉과 다이어트 클리닉 등을 코너로 선보였다. 과연 이런 코너가 토크쇼에서 선보여야 할 코너인가 부터가 의심스러울뿐더러 이를 진행하는 방식은 더욱 가관이다. 이룰테면 '미녀 삼총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다이어트 클리닉을 받았던 출연자는 안문숙과 안연홍으로 두 사람은 눈을 씻

고 봐도 과 체중이라고 보기조차 힘들다. 그러나 물론, 우리의 '슈퍼 모델' 출신의 이소라의 눈엔 그렇지 않으며 그는 두 사람에게 비 이상적인 수치적 몸매로 향하는 가혹한 채찍질을 기꺼이 즐겼다. 이러한 외모 지향성은 이 프로그램 전체에 깔려 있으며 이는 이소라의 세계관속의 가장 커다란 잣대가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그는 초대 손님의 외모를 토대로 존중의 격조차 달리하며 (이는 탤런트 류시원과 개그맨 윤정수가 같이 출연했을 당시 눈물나도록 생생히 드러났다.) 더 나은 외모를 향한 코너를 진행하는 때의 그는 만화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영웅 마냥 특의 만만하다. 게다가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그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다는 그 자체로의 다소의 이점도 인격을 의심케끔 하는 대상자들에 의한 그의 한없는 무시와 증발되어 버린 최소한의 예의로 인해 표표히 사라져 버린다. (일테면 그는 너무 일찍 찾아온 탈모로 인해 고민하는 청년 앞에서 정말 나이 들어 보인다고 킬킬대고 호들갑을 떠는 식이다.) 그러나 그러한 무시 또한 대상자들은 참고 견디는데 이는 외모를 상향 시켜주는 그의 능력이 하나의 '권능'처럼 받들 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최고의 백미는 따로 있다. 그것은, 초대 손님의 이상형에 맞는 옷차림을 공개하는 시간으로, 초대 손님 미리 자신은 이런 스타일을 원한다고 주문을 해 놓고 이소라가 000씨의 남자/여자 나와주세요 하면 세 명 정도 되는 모델이 걸어 나와서 마네킹처럼 서있게 된다. 이소라와 이범수, 출연진은 그렇게 물화 되어 서 있는 모델들을 둘러서서, 스타킹이 이색이 아니라는 등 소매를 접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주고받고, 심지어는 이중 가장 마음에 드는 쪽에 가서 팔짱을 끼라는 식의 주문을 하고, 또 거기에 응한다. 바로 그 순간은 내가 뭘 잘 못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아찔한 이 프로그램의 백미이다.

얼마 전, 리포터들이 꼽는 인터뷰하기 가장 어려운 연예인이라는 이영애가 토크쇼를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다. 짧은 인터뷰에서조차 늘 해뜩해뜩 투명한 웃음을 지어 보일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그녀가 토크쇼를 맡았다는 사실은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결국 그 토크쇼는 이영애의 진행자로써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1회 촬영분만 특별 방송 식으로 내보내고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되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으로 치달았다. 이 엽기적인 사건은 그러나 처음부터 능히 예상되었던 일이며, 공중파에서 여성 진행자를 선택할 때 어떠한 조건을 최우선시 하고 반대로 진행자로써의 본연의 자질을 차치하여 생각하는지를 또렷이 입증한 일이라 하겠다. 너무 이쁜 당신, 그러나 말씀씨가 탁월하다고 보기는 좀 민망한 당신, 당신들이 진행하는 쇼를 보면서 다이어트나 성형에의 의지를 다지는 어떤, 당신. 지금 공중파는 그렇게 돌고 돈다.

